

6. 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을 앞당기자!

영원히 우리 겨레와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은
계신다



잊지 못할 우리 수령님

- 1. 만경대 해돋이 되시여 세월의 어둠가시고
백두의 붉은기 되시여 력사의 앞길 밝혔네
주체의 새시대 열어준 김일성대원수님
얼마나 위대한분을 우리가 모시였던가
- 2. 이 땅에 누구도 못해본 일심의 화원가꾸고
세상에 누구도 못 세운 인덕의 락원 꾸렸네
주체의 강국을 꽃피운 김일성대원수님
얼마나 위대한분을 우리가 모시였던가



- 3. 오늘도 자주의 빛발은 누리를 밝게 비치고
래일도 반제의 한길에 선군의 승리 빛나리
주체의 영원한 태양인 김일성대원수님
얼마나 위대한분을 우리가 모시였던가



위대한 혁명생애와 길 이 빛날 것 이 다
김정일장군님의 혁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영원히 높이 모시였다

천만군민이 주체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장엄한 역사적대진군에 펼쳐나선 격동적인 시기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영원히 높이 모시였다.

대표자회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총의를 반영하여 장장 수십성상 탁월한 선군사상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주체혁명위업완성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시어 인류사에 전무후무한 세계사적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을 영원한 김일성주석의 당, 가장 권위있고 전도양양하며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백전백승의 항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영원히 높이 모시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갈것을 결정하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대표자회의 참가자들은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천만년 길이 빛날 조선로동당에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열화같은 흠모심과 감격에 넘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였다.

인류가 낳은 사상리론의 영재이시며 불세출의 전설적위인이시며 백전백승의 선군령장이신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영원히 높이 모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어나갈수 있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수백만 조선로동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영원무궁한 행복이며 태양민족의 대경사이다.

그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발전풍부화하시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시어 천만군민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된 일심단결을 마련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사회주의정치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일떠세우시였으며 민족사에 처음으로 강성변영의 세계적변혁을 이룩하시고 인류자주위업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회세의 정치원로에 대한 가장 고결한 도덕의리심과 총정의 표시이다.

대표자회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을 조선로동당의 강령적지침으로 삼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주석, 김정일장군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자주,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같은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였다.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위대한 선군대양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영원히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주체혁명위업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혁명적열의에 충만되어있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존함으로 빛나는 조선로동당은 선군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백전백승으로 항도하며 선군의 우리 공화국을 영원무궁토록 온 세상에 떨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높이 추대

주체의 선군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에서 결정적전환이 일어나고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시기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높이 추대하였다.

대표자회에서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출중한 위인적품모와 뛰어난 령도력, 한없이 고매한 덕망을 지니시고 일찍부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함께 계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아오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의 주체혁명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높이 추대하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높이 모시는 역사적인 시각 대표자회의 전체 참가자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 열화와 같은 흠모의 정에 넘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최대의 경의와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로동당의 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변이며 선군조선의 양양한 전도와 민족의 만년대계를 담보하는 대경사이며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대의 행운이며 영광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추대한것은 천재적인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절세의 백두산위인들의 혁명사상을 발전 풍부화하시여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빛내이시고 정치, 군사, 경제, 문화를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독창적인 사상리론들을 제시하시여 빛나게 실천하시며 정력적인 선군령도로 주체적군건설사에 특출한 공헌을 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에 대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이다.

그것은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령도 따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과시하는 일대 정치적사변으로 된다.

대표자회 전체 참가자들은 선군혁명의 심장이시고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력의 상징이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모든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령도따라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기어올릴새우고야말 비상한

혁명적열의와 락관에 충만되어있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며 위대한 태양을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은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와 더불어 더욱더 찬연히 빛날것이다.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 진행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가 4월 11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대표자회장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립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이 모셔져있었다.

대표자회장에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대표자회에 참석하시였다.

대표자회에는 조선인민군당, 각 도당, 정치국대표회들에서 선거된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인민군인들, 과학, 교육, 보건,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이 대표자회에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고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었다.

대표자회에서는 각 도대표자들의 대표회의 위임을 의하여 최영림 내각총리가 의장으로 사임하였다.

대표자회는 집행부를 선거하였다.

대표자회는 서기부를 선거하였다.

대표자회는 다음과 같은 의정을 결정하였다.

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영원히 높이 모시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2. 조선로동당규약개정제에 대하여
 3.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데 대하여
 4. 조직문제에 대하여
- 대표자회에서는 첫째 의정을 토의하였다.
- 보고를 김영남위원장이 하였다.
- 황해남도당조직대표인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선인민군당조직대표인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황해북도당조직대표인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회 부위원장, 함경남도당조직대표인 로두철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문화성당조직대표인 안동춘 문화상이 토론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영원히 높이 모시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갈데 대한 결정서가 낭독되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한평생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높이 정력적인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공화국을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된 존엄높은 정치사상강국,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고 반만년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조국번영의 대전성기를 펼쳐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영원히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감격에 넘쳐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터치였다.

대표자회에서는 둘째 의정을 토의하였다.

조선로동당규약개정제에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대표자회에서는 셋째 의정을 토의하

였다.

대표자회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하는 추대사를 김영남위원장이 하였다.

조선인민군당조직대표인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평안북도당조직대표인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함경북도당조직대표인 현상주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 황해남도당조직대표인 리명길 농군맹중앙위원회 위원장, 평안남도당조직대표인 장철 국가과학원 원장이 토론하였다.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결정서가 낭독되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천재적인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을 지니신 위대한 정치가, 탁월한 군사전략가, 인민의 자애로운 령도자이시며 선군조선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금지과 자부심, 주체혁명, 선군혁명위업의 중곡적승리에 대한 확신에 넘쳐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치면서 열렬한 축하를 드리었다.

대표자회는 조선로동당규약과 조선로동당 제1비서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시였음을 선포하였다.

대표자회에서는 넷째 의정을 토의하였다.

-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을 보선하였다.
-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보선하였다.
-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을 소환, 보선하였다.
-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선거하고 위원들을 소환, 보선하였다.
- 당중앙위원회 부장들을 임명하였다.
-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을 소환, 보선하였다.
- 김영남위원장이 폐회사를 하였다.

대표자회는 《인러나소날》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제 5차회의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높이 모신 끝없는 감격과 환희가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가 4월 1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과학, 교육, 문학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이 회의에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주석단에 참석하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최대부의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 의안을 결정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데 대하여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제 100(2011)년 사업정형과 주제 101(2012)년 과업에 대하여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제 100(201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제 101(201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5. 조직문제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이 토의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하는것과 관련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대원이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수정보충안을 승인함에 대하여》가 대의원전원찬성으로 채택되었다.

회의에서는 둘째 의정이 토의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대원이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수위에 추대하는 연설을 하였다.

그는 전당, 전군, 전민의 총의를 반영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위업을 받드시여 당과 군대, 국가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안으시고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제의를 최고인민회의에 정중히 제기하였다.

김정은 최고령도자를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려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의 절절한 념원과 한결같은 의사가 반영된 제의는 전체 대의원들과 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회의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시였음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또 한분의 백두산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렸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으로써 백두에서 개척된 선군혁명위업, 주제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2012년의 자랑스런 승리를 안아오기 위하여 아버지장군님께서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에서 이끌어오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온 나라 방방곡곡을 종횡무진하시며 조강도강행군길을 이어오신 아버지장군님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주제100년사가 빛나게

회의에서는 셋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내각총리 최영림대원이 하였다.

넷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재정상 최광진대원이 하였다.

셋째 의정과 넷째 의정에 대하여 판법기대의원, 김창룡대의원, 리용대의원, 최종건대의원, 고명희대의원, 황영삼대의원, 송윤희대의원, 김형덕대의원, 김성희대의원, 포희성대의원, 량장균대의원, 김광주대의원, 여만현대의원, 김영송대의원 이 서면토론을 제기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원히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커다란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지난해에 결속되고 공화국정권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지난해 내각의 사업정형과 국가예산집행이 정확히 총화결산되었으며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내각의 과업이 명백히 제기되고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발양시킬수 있도록 국가예산이 옹건 편성되었다고 하면서 이에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토론자들은 미제와 남조선피괴적패당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김일성민족의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되는 올해를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사업보고와 주제100(201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제101(201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가 대의원전원찬성으로 채택되었다.

회의에서는 다섯째 의정인 조직문제까지 토의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대의원,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원홍대의원, 인민보안부장 리명수대원을 보선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대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와 제5차회의에서 추대, 선거된 국방위원회 성원들을 발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을 보선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부총리, 내각 부총리 겸 수도건설위원장을 임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을 보선하였다. 최대부의장이 폐회사를 하였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다

태양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소집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다.

회의는 전당, 전군, 전민의 절절한 념원과 의사에 따라 우리 혁명의 최악의 역경속에서 선군정치를 혁명과 건설에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국가정치체제를 확립하시여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실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수정보충하고 최고인민회의의 법령으로 채택하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위대한 선군령도를 공화국의 무궁번영과 더불어 천만년 받들어모시게 된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열광적으로 터쳐올렸다.

은 세계가 공인하고 칭송하는 회세의 정치원로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국방위원회의 최고수위에 영원히 높이 모신것은 위대한 선군령도자께서 펼쳐주신 주제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와 더불어 길이 빛날 태양조선의 무궁한 영광이며 최상의 존엄으로 된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받들어모신것은 탁월한 선군사상과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혁명의 선군전통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공화국정권을 주제혁명위업수행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여 김일성조선의 백승의 미래를 담보해주시였으며 조국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만고의 전설적위인께 드리는 최상최대의 경모와 칭송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을 공화국의 최고직책에 영원히 높이 모시으로써 백두천출명장의 특출한 선군혁명령도업적이 태양조선의 무궁한 력사에 천추만대 빛나고 우리 조국이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국가로 천만년 존엄을 떨치게 되었다.

회의는 거룩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강성번영과 주제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업적을 조선로동당과 혁명의 귀중한 재보로, 영원한 지침으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총대로 개척되고 승승장구하여온 주제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며 장군님의 리상을 만대에 꽃피워갈 천만군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 숭고한 도덕리념을 만방에 과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영원히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거룩한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천만년 강성번영을 위하여 선군혁명의 한길을 더욱 역세게 걸어나갈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앞길에 끝없이 광명한 미래가 펼쳐지고있는 력사적시기에 소집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온 나라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문무를 겸비하신 위대한 정치가이시며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무비의 담력과 숭고한 혁명적동지애를 지니시고 거창한 혁명실적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령도하여오신 주제혁명위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력사적인 이 시각 최고인민회의의 전체 참가자들은 다함없는 경모와 열화와 같은 총정의 마음을 담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김정은최고령도자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것은 우리 공화국을 영원한 김일성주석, 김정일장군님의 국가로 공고발전시키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더 높이 떨침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어나갈수 있는 만년토대를 담보하는 특기할

경사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모신것은 일찍부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함께 혁명과 건설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여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에 대한 전체 인민군인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확고부동한 지지의 발현으로 된다.

그것은 또한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제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과시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와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걸어가갈 참된 혁명동지, 전우가 될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어있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의 령도따라 역세게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하늘땅에 차넘치는 크나큰 기쁨, 민족의 대경사

지난 11일은 나라 군대와 인민의 커다란 관심속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제1비서로 높이 추대하는 역사적인 결정이 채택되었다. 이로부터 얼마후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회의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는 역사적인 결정과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이 격동적인 소식에 접하여 지금 온 나라는 명절분위기에 휩싸이고 끝없는 기쁨과 환희가 거리와 마을, 공장과 농촌을 비롯하여 강산에 차넘치고 있다.

이번에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아버지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에 대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 절대적인 지지의 분출이다. 그것은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대를 이어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성스러운 민족자주위업을 끝까지 계승하고 승리적으로 완성해나가는 천만군민의 드림없는 의지와 맹세의 발현이다.

아버지장군님께서 뜻밖에도 우리 곁을 떠나시었지만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는 그의 모습이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태양의 모습으로 새겨져 있다. 장군님은 가시지 않았고 영원히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조가 모두의 가슴속에 아름답게 기록처럼 깊이 뿌리내려져 있다. 그 믿음, 그 사무치는 그리움과 정, 그 간절한 소원이 드디어 성취되어 영원한 총비서,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장군님께서 태양의 밝은 빛을 뿌리시며 우리에게로 오신 것이다. 봄빛이 찬란한 김일성조선의



만수 대창 작사를 현지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

새 100년대가 펼쳐진 뜻깊은 해의 4월에 우리 조선민족은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서인 또 한분의 천출위인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는 크나큰

영광과 기쁨을 받아안았다.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는 역사적인 환경속에서 조국과 민족을 이끌어갈 절세위인을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이야말로 반만년민족사에 가장 뜻깊게 새겨질 민족

의 크나큰 공지이며 대경사가 아닐 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는 빛나는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인민사랑의 천품으로 공화국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고 온 나라 인민과 겨레를

따뜻이 품어 안아 보살펴주시는 사회의 위인,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지이다. 이미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산천초목도 비분에 잠겨 몸부림치던 12월의 그날들에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어떤분이신가 하는것을 누구나 온몸으로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 그 누구보다도 크나큰 상상의 아픔을 지니고계시었지만 인민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으로 아버지를 잃고 목놓아우는 온 나라 인민을 따듯이 품어안

아 찬바람을 막아주시고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조선이 다시 일떠서게 해주신 김정은최고령도자는 그대로 온 나라 인민이 눈물속에 찾고부르는 김정일장군님이시었다.

떡장구름이 짙게 드리웠던 조선의 하늘에는 태양이 다시 솟아 빛을 뿌리었다.

그때로부터 불과 수개월, 민족의 운명사에 너무도 짧은 한순간이지만 이 날에 우리 겨레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출중한 위인상, 너무도 뛰어난 정치실력과 명장의 위풍이 모두가 반하고 저마다 흠모와 칭송의 격정들을 터치어왔다.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 105방코사단에 대한 역사적인 첫 시찰로부터 시작하여 초도와 판문점에 이르기까지 그의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은 끝없이 이어졌고 그속에서 내 나라는 더욱 강해지고 군대와 인민의 령도자에 대한 애호와 흠모, 조국의 일심단결은 최절정에 이르렀다.

령도자와 팔을 끼고 또는 성벽처럼 그이를 에워싸고 조선의 군대가 찍은 무수한 사진들, 그의 품에 어루러지듯 달려와 안기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떠나가시는 최고령도자의 차를 만세를 웨치며 따라가던 군부대가족들의 눈물겨운 장면들, 그것은 조선이 어떤분을 최고령도자로 받들어모시였는가를 세계앞에 보여준 감동의 화폭이었고 그이 따라 승리의 래일로 신심드높이, 용기백배하여 달려가는 선군조선의 자랑스런 위풍의 과시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어 이제 공화국의 앞길은 더욱 밝고 민족의 래일은 무궁창창하게 되었다.

온 나라 군대와 인민, 우리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민족자주위업의 진두에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고 그의 애국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과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기어아 앞당겨 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대를 이어 누리는 태양복

인류역사의 려명기부터 사람들은 빛과 열로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는 태양의 복을 받기를 일구어왔으며 기원해왔다. 하지만 그러한 행운은 바라한다고 하여 어느 민족에게나 차레지는 것이 아니었다.

어둠던 강산에 위대한 애국가, 불세출의 영웅 김일성장군님께서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어 우리 겨레의 념원은 비로소 실현되게 되었다. 수령님께서 10대에 벌써 민족자주위업을 벌리시였으며 주체의 빛발로 겨레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조국해방을 이룩하시였다. 그이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겨레는 나라 잃고 자기의 말과 글마저 빼앗긴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면할수 없었을 것이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신분, 조국땅위에 인민이 주인된 새 세상,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수령님이시었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의사를 집대성하여 정책을 세우신 수령님,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순간의 휴식도 없이 북방의 두메산골, 분계연선마을 등 인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다 찾아가신 위대한 아버지를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을수 없다.

태양의 위업은 태양만이 이어갈수 있다. 아버지수령님의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이신분은 회세의 선군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었다. 민족자주위업을 령도하시는 길에 수령님과 함께 계시면서 탁월한 정치실력과 령도

품모를 체득하신 장군님께서 조국앞에 시련이 닥쳐왔던 준엄한 나날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리시고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온 나라에 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주시어 강성국가건설의 전향적 국면의 열여놓으시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열어가는 김정은최고령도자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가 우주공간을 짝 메우고있다. 그이를 만나뵈은 한 해외동포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만나뵈은 시간은 순간에 지나지 않지만 주체혁명위업을 계승하시어 내 조국, 내 민족을 세계에 빛내어주시는 태양의 모습을 가슴가득 받아안았다.》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펴려하였다.

오늘 민족자주위업의 진두에는 아버지수령님,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서인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서계신다.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찬 100년사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는 우리 겨레가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맞이하는 려사의 분수령에서 또 한분의 찬란한 태양을 맞이한것은 최상최대의 행운이 아닐수 없다.

오늘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열어가는 김정은최고령도자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가 우주공간을 짝 메우고있다. 그이를 만나뵈은 한 해외동포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만나뵈은 시간은 순간에 지나지 않지만 주체혁명위업을 계승하시어 내 조국, 내 민족을 세계에 빛내어주시는 태양의 모습을 가슴가득 받아안았다.》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펴려하였다.

오늘 민족자주위업의 진두에는 아버지수령님,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서인

위대한 김일성주석탄생 100돐을 맞으며 대파문을 일으키며 련일 성황리에 계속되고있는 뉴욕공동사진전시회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새롭게 세진 조선의 참모습이라고 하였다. 세계는 성스런 주체위업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리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세계에서 제일 젊고있는 국가지도자로 칭송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태양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의 진정의 토로이다. 백두에서 개척된 민족자주위업을 기어아 완성하시실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시어 선군조선의 앞날은 휘황찬란하다.

본사기자 박단희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조국을 방문한 나는 격동적인 사변들을 눈앞에서 련속 목격하였다. 특히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한 중대소식을 접하면서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 된 긍지와 자부심을 금할수 없었다.

나는 일본에서 살면서 세계정치를 뒤쫓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탁월한 령도 예술의 극치에 매번 감동을 금치 못하였고 그에 매혹되어 선군조선과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많은 글과 책자도 써왔다. 오늘 우리 조국이 세계에 몇안되는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되고 자주의 태양으로 빛을 뿌리고있는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본사기자 박단희

민족의 밝은 래일을 본다

그런데 오늘은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 탁월한 정치가를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였으니 이 기쁨과 감격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아마 지금 제일동포사회도 명절처럼 흥성있고 있을것이다.

주체의 태양이 빛을 뿌리는 평양을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사는 우리 재일동포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최근 조국에서 펼쳐지는 사변들을 격동과 흥분속에 지켜보아왔다.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본사기자 박단희

이 드시고 인민군부대들을 련이어 찾으며 군력을 더욱 강화하고 군인들을 친부모의 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모습은 언제나 군대와 인민들속에 계시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모습 그대로였다.

조선은 이끄시고 미래에로 부부당당히 나아가시는 천출명장을 높이 모시며 민족의 대조선적대사업정책은 궁극적으로 파산의 운명에 처할것이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전향적인 국면이 열리리니 기대하는것을 나는 굳게 확신한다.

몸은 비록 해외에 있어도 나는 위인을 모신 조선민족의 긍지를 안고 앞으로는 공화국의 부강번영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 적은 힘이나마 강그리 바쳐가겠다.

조미평화센터 소장 김명철(재일동포)



크나큰 민족적금지 와 환희에 넘쳐있는 근로자들 -만수대언덕에서-

환희로운 봄강산에 민족의 대경사가 님다. 려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시였다는 소식이 접한 온 나라가 끝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설레이고있다. 백두산3대장군의 품속에서 대해같은 사랑을 받아온 우리 가족의 심정도 마찬가지이다.

나의 남편(태병렬)은 10대의 시절부터 손에 총을 잡고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온 항일투사이다. 남편은 늘 자식들에게 항일의 나날 아버지수령님의 품속에서 보람찬 삶을 누리는데 대하여 이야기해주곤 하였다. 일제를 반대하여 어린 나이에 손에 총을 잡은것이 기특하시어 《고마동무》라고 불려주시고 손날로 중상입은 다리

도 안겨주시는 수령님은 진정 한없이 자애로운 아버지, 순간도 떨어져살수 없는 운명의 태양이시었다. 하기에 오래 동안 아버지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일해오면서 수령님의 천출위인상을 누구보다 뜨겁게 절감해온 남편은 살아도 수령님의 품에서 살고 죽어도 수령님을 받드는 길에서 값있게 죽을 신념으로 심장을 불태워왔다.

나에게도 항일의 녀성영웅

를 제손으로 수술하고 대오를 찾아왔을 때에는 아주 의지가 강하다고, 《고추알》이라고 치하해주신 수령님을 어떻게 받들어모시고 어떻게 보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지어 옷차림과 말씨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던 김정숙어머님의 모습이

이신 김정숙어머님의 따듯한 손길속에 성장해온 잊지 못할 추억이 간직되어있다. 해방직후 나에게 위대한 수령님을 어떻게 받들어모시고 어떻게 보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지어 옷차림과 말씨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던 김정숙어머님의 모습이

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 우리 가정에 둘러주신 백두산위인들의 은정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해방직후 오찬복동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조선 립시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업하실 때에 수령님을 보좌해드렸다고, 오찬복동무와 태병렬동무의 결혼을 우리 어머니가 시켜주었다고 감격깊이 추억하시였다.

나에게도 항일의 녀성영웅

과 믿음은 우리 일가가 어떤 시련속에서도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를수 있게 한 신념의 자랑이었다.

조선혁명의 려명기부터 백두산위인들을 민족의 태양으로 우리러 받은 일심단결의 전통은 또 한분의 태양을 모시여 더욱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그대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고 찬란한 미래이시다. 나는 대를 이어 수령님, 장군님을 누려가는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충정으로 받들어모시겠다.

평양시 중구역 교구동 오찬복

김일성민족의 승리와 영광의 100년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100년

조선의 만경대에서 세기의 태양이 솟아오른 때로부터 어언 100년이 흘러왔다.

절세위인의 탄생을 전지구적인 최상최대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려는 겨레와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축원의 물결이 평양으로 굽어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은 백두산위인들의 위대한 생애와 애국애족의 업적을 길이 칭송하면서 만수대인덕우에 새로 높이 모셔진 태양의 동상들에 삼가 경모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세계 각국에서 달려온 친선의 사절들이 심장으로 태양찬가를 리치는 4월의 봄 친선에 솔축전이 전례없는 규모에서 성대히 진행되고있다. 주체사상세계대회가 열리고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경축하는 국제축전이 대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태양의 존함과 함께 《주체》, 《조선》이라는 말을 담은 축전들과 태양절특집방송, 통신, 인터넷트보도들이 우주공간을 메우고있다.

우리 민족의 력사가 시작되어 반만년이 되어오지만 오늘처럼 사상사학자들의 각광속에 나라가 흥성인 때는 일찍이 없었다.

우리 민족의 첫 국가인 고조선의 근 3 000년사도, 동방의 강대국으로 이름떨친 고구려의 근 천년사도, 처음으로 통일국가를 세우고 고려정체자로 유명했던 고려의 470여년사도, 가장 발전된 문자인 훈민정음과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들어낸 리조의 500여년사도 주체조선의 100년사처럼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빛내이지 못했다.

지나온 100년이야말로 민족의 반만년사에서 가장 존엄높고 승리와 영광에 찬 특기할 100년이었다.

선조들이 커다란 재부를 안겨 주어도 아니고 기술문명의 혜택을 입어서도 아니다. 100년전 선조들이 남긴것은 락후한 농업과 식민지밖에 없었다.

만국박람회때 질신을 내놓았던 우리 민족이 오늘은 세계의 빛안되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밧사국, 핵보유국으로 우뚝 솟아올랐다. 국력이 너무도 쇠잔하여 왜놈들의 식민지로 전락되고 국호마저 빛을 잃었던 조선이 오늘은 세계의 그 어느 대국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정치대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

그 어떤 경제공황에도 끄떡하지 않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우에서 지금은 지식경제형강국으로 도약해가고있다.

지난 한세기동안에 반만년세월에도 이룩할수 없었던 기적을 창조할수 있는것은 바로 절세의 위인들을 태양으로 모시었기 때문이다.

인제는 사회의 특정한 분야를 발전시키지만 위인은 나라를 일



평양의 장대재언덕에 건립된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도자이크벽화

떠세우고 새로운 시대를 연다.

1912년 4월 15일 만경대의 추녀낮은 초가집에서 탄생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나라와 민족, 시대와 력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의 애국자, 불세출의 위인이시였다.

이날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변혁이 일어나고 주체년호로 빛나는 현대조선의 새 력사가 시작되었으며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는 력사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수령의 위대성은 사상의 위대성이며 만민이 수령을 따르는것은 뛰어난 사상때문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격동하는 20세기의 흐름속에서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새시대의 태동을 천재적예지로 통찰하시고 독창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우리 겨레는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기의 신념과 주체에 따라 민족자주위업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긍지높고 힘있는 민족으로 되었으며 인류력사발전의 새시대, 위대한 주체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오늘날 세상사람들이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 사회주의를 인민대중의 리상향으로 끝없이 공감하고 새 사회건설의 모델로 삼고있는것은 주체사상의 무궁무

진한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 이 땅우에는 창조되고있는 주체로 불리우는 모든 창조물들이 다 주체사상의 고귀한 결실이다.

인류사상사에는 사회발전이 바지한 진보적인 사상들이 적지 않지만 주체사상처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의 전령역에 걸치는 과학적인 이론과 전략술, 방법론을 폭넓게 밝힌 백과전서적인 사상은 없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것으로 하여 어버이수령님은 우리 겨레와 인류에게 운명개척의 힘있는 보검을 안겨준 회색의 대성인으로 만민의 절대적인 칭송을 받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은 가장 복잡다단했던 20세기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세기적전변을 안아오신 절세의 애국자, 불세출의 탁월한 령도자이시였다.

력사자들은 20세기를 가리켜 위인의 세기라고 말하고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된 사회주의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20세기처럼 명인들과 위인들이 많이 나타난것은 력사에 일찍이 없었다.

하지만 세상사람들은 한결같이 20세기를 김일성세기라고 부르고 있다. 한것은 어버이수령님처럼 당대에 그렇듯 거룩한 업적을 이룩한 전설적위인은 동서고금에

없었기때문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0대에 벌써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히고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20대에는 항일의 전설적명장으로, 민족해방의 구성으로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를 받으시였다. 30대에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안아오시고 건국, 건국, 건국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40대초에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을 무릎꿇게 하시고 전승의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인민민주주의국가를 세우시던 30대의 그 시절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근 50년동안 나라와 민족을 이끄시면서 단 한번의 로선상착오도 없이 락후와 빈궁만이 휩쓸던 조선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어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어버이수령님이시야말로 회색의 위인이시고 력사가 알지 못하는 으뜸가는 대정치원로이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참으로 현명한 분이시이다. 그이께서 많은 일을 해놓으셨기때문에 다음 세대들은 할 일이 없을것이다》, 《김일성동지는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중에서 가장 로련하고 권위있는 분이시이다》, 《김일성주석은 위대한 국가원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제2차 세계대전후부터 오늘까

지 활동한 위인들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위인이시였다.》, 《김일성주석은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의 건국자들과 태양신들을 다 합친것보다 더 위대한 인간운명의 태양신이다.》…

자존심이 강하다고 하는 국가원수들, 지어 적국의 정치가들까지도 어버이수령님에게만은 최대의 존경심을 가지고 칭송의 언어를 아끼지 않은 이 하나의 사실에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결출한 위인을 수령으로, 태양으로 모시였는가를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된다.

에로부터 인자무적이라 했다. 어버이수령님은 사상과 령도력에서만이 아니라 덕망에서도 세기의 으뜸이신 인간태양이시였다. 력사에는 국민을 위해 선정을 베풀었다는 정치가들이 적지 않았지만 수령님처럼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한생을 인민의 어버이로 사신 그런 자로운 수령은 없었다.

오늘 이 나라의 별방과 두메산골의 어느 공장과 농장이나, 살림집이나 인민을 위한 수령님의 사랑의 자욱이 짙혀지지 않은 곳이 없다. 이민위천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혁명을 시작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한평생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길에서 자신의 기쁨과 행복, 락을 찾으시였다. 해방후부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해 걸으신 로정만도 백두산에서 한나산까지 300여회나 왕복한것과 맞먹는 144만 5 000여리에 달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한평생 커다란 실험을 바치시였다. 나라의 분열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통일방안들을 천명한 조국통일3대헌장을 내놓으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운동으로 확대강화하신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기 위한 문건에 수표하시고 실장의 박동을 멈추신것은 수령님이시기에 온 겨레는 그이를 민족의 어버이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있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20세기의 년대기에 조선이라는 국호를 세계만방에 빛내이시기 위해 조국과 민족앞에 쌓으신 거대한 애국애족의 업적은 조국청사에 금문자로 길이 솟아 빛날 것이다.

김일성조선의 100년사에는 한분분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거룩한 생애와 업적도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일찍이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치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민족자주위업을 이어나갈 후계자

로 역세계 성장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에 수령님과 함께 계시였다.

그토록 하늘처럼 민고살던 어버이수령님을 뜻밖에 잃고 근 20년세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조선을 통일강성대국으로 빛내이시려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시였다.

지난 세기 90년대말에 조성된 엄혹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선군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드시고 주체의 새시대, 선군시대를 펼쳐시어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성스러운 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력사적전환을 이룩하신 장군님이시였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워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의 운명을 수호하시였으며 선군조선을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넘겨다보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신것은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민족사적업적으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일심단결은 선군조선의 제일국력으로 온 누리에 위력떨치고있으며 대고조의 불길속에서 경제건설분야에서 일어난 경이적인 사면들은 강성국가건설의 만년토대로 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겨레의 조국통일축원을 풀어주시려 우리 민족끼리의 리범아래 힘차게 전진하는 6.15통일시대를 열어놓으신것은 민족통일운동사에 불멸할 커다란 공적으로 된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한평생 지구돌레를 근 17바퀴나 돈것과 맞먹는 167만 4 610여리의 강행군길을 걸고걸으시며 조국과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놓으시고 새로운 주체 100년대를 김일성조선의 강성변영의 년대로 끝없이 빛내여 나갈수 있도록 령도의 계승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해놓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어버이수령님과 꼭 같은 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태양이시였다.

태를 이어 위대한 태양을 모시여 김일성조선의 100년사는 승리와 변영의 력사로 흘러갔다. 이것이 지나온 100년을 돌이켜 보는 우리 겨레의 긍지높은 추억이다.

새로운 100년대가 우리앞에 펼쳐지고있다. 아직도 우리앞에는 넘어야 할 시련의 언덕들이 많다.

허나 또 한분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 계시기에 김일성조선의 새 100년대는 통일강성변영의 년대기로 더욱 찬란히 빛날것이라는것을 뜻깊은 태양빛의 이 아침 겨레모두는 굳게 확신하고있다.

본사기자 박금일

사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뜻깊게 맞이하는 이 시각 온 겨레는 조국통일성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그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조국통일은 김일성주석의 필생의 위업이었으며 절절한 념원이었다.

그이께서는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해방직후 유엔의 간판밑에 남조선에서 《단선단정》이 조작되던 엄혹한 시기에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시어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리게 하시던, 우리 나라에서 하나의 조선이 《두개 조선》이나 하는 철예한 대립과 투쟁이 날카롭게 벌어졌던 시기에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

쟁으로 온 겨레를 불러일으키신분이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시였다.

한없이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신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늘 심려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고하시였다.

외세에 의한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숙망이자 나의 숙망이라고 하시며 그이께서 나라의 통일을 위해 걸으신 길은 몇천몇만리이고 지세우신 밤은 그 얼마였으며 몸소 집필하신 고전적으로 작물과 친히 보아주시고 비준해주시는 문건들이 그 얼마인지 헤아릴수 없다. 피어린 항일대진으로 조국을 찾아주셨건만 강토와 민족이 물로 갈라진 것이 그리도 가슴에 저려와 화진포와 철원, 개성 등 여러 지역에도 자주 나가보신 주석분이시였다.

밤이 되면 남녘인민들의 생각이 더 난다고, 분렬된 조국의 력사가 하루하루 길어가는것이 가슴아프다고, 통일만 되면 자신께서는 10년은 더 젊어질것 같다고 하시며 생신날마저 쉬지 않으시고 겨레에게 통일의 기쁨을 안겨주

시기 위해 밤을 지새우신분,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통일을 위해 실험을 기울이신 김일성주석의 숭고한 모습은 우리 겨레는 잊지 못하고있다.

인류력사에는 명인들이 걸어온 인생행로에 대한 기록들이 수많은 전례지고있지만 김일성주석처럼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통일과 민족의 융성변영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인간, 절세의 애국자는 없다.

천리헤안인 예지와 선견지명으로 통일의 앞길을 밝히는 위대한 정열을 제시하시고 겨레를 대단함과 통일의 길로 이끄러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오늘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경애하는 주석의 유훈대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려는 우리 민족의 신념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 겨레에게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헌장이 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고와 심혈로 마련된 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

인 10.4선언이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올해에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운동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민족자주, 민족우선의 립장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 외세의존을 추구하면서 자주주요, 북과 남의 화해요, 단합이요 하는것은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민족자주와 외세의존은 량립불가능하다. 진정한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민족자주의 리념을 핵으로 하는 북남선언들을 적극 지지하고 리행하려는 분위기가 온 강토에 차넘치게 하며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사대매국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온 겨레는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여기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려야 한다.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동족대결분자들의 반동 일책들을 추호도 용서치 말아야 하며 인민반역부리들의 동족대결정책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야 한다.

내외호전파들의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것은 현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다.

민족은 반전평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내외호전분자들의 반공화적군사적도발과 무력증강, 전쟁연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며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기반장애물인 미 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유훈을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은 새로운 주체100년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애국투쟁이다.

오늘 조국통일운동의 진두에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뜻, 령도공모와 숭고한 덕망을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 서계신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절세위인들의 통일유훈을 받들어나가는 시기에 김정일최고령도자의 의도대로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운동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뜻깊은 사면들로 가득찬 올해를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여는 해로 빛내여야 할것이다.

1912년 4월 15일, 이 날은 우리 겨레의 운

명전환의 날이었다. 바로 이날부터 땅국의 비운이 드러났던 이 땅에 민족재생의 봄빛이 흘렀고 수호와 창조, 변영의 새 력사가 펼쳐져 자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을 담보하는 삶의 터전, 부강조국의 만년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위대한 태양을 모시여 항일대전의 승리로 조국해방이 이룩되고 해방후 이 나라 인민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 새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세계 《유일초대국》이라 자처하는 미제의 거만함 고대를 꺾어버리고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온 1953년 7월 27일도 전후 반터우에서 오늘의 조선을 일떠세운 기적도 민족의 태양이 솟아오른 1912년 4월 15일과 이 땅이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일심단결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와 강위력한 자위적국방력 등도 1912년 4월 15일을 떠나 어찌 생각할수 있으랴.

정녕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1912년이 있어 자주민족의 존엄, 강국의 위용을 떨치는 2012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오늘의 2012년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 1912년이 있어 오늘의 2012년이 있다.

오늘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위업은 민족자주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최고령도자에 의하여 곳곳이 이어지고있다.

이 땅의 군대와 인민은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최고령도자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어버이수령님의 념원, 인민의 리상이 꽃피어나는 통일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 것이다.

이것이 민족최대의 경사로운 2012년 4월 15일의 이 아침 민족의 영원한 태양 어버이수령님을 그리며 리치는 7천만겨레의 심장의 웨침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1912년과 2012년

절세위인을 모시여 밝아오는 통일 아침

관문점은 길이 전 하 리



민족의 어머니인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경축하는 뜻깊은 이 시작은 겨레는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머니수령님의 거룩한 애국의 한평생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지금도 력사의 땅 관문점에는 어머니수령님의 통일철폐비가 거연히 솟아 빛을 뿌리고있다.

《 김 일 성 1994. 7. 7. 》
불과 아홉글자밖에 안되는 철폐에 수천수만자의 비문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한것, 조국통일위업에 바치신 수령님의 한생의 로고와 영원불멸할 업적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해방의 환희가 분렬의 뼈아픔으로 바뀌어지던 민족의 운명을 두고 누구보다 격정하고 가슴아파하신 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의 마지막시가지까지 조국통일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시었다.

외세와 그 추종세력의 책동으로 민족분열이 고정화될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던 그때 남북계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시여 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주시는분도 수령님이시고 수십년간 격페상태에 처했던 북남관계에 폭넓은 대화와 협상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는분도 수령님이시었다.

천리헤안의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 숭고한 동포애를 지니신 수령님께서 조국통일3대헌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비롯한 가장 현실적이고 공명정대한 조국통일원칙과 방침들을 천명하시여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수령님께서는 늘 조국통일문제 때문에 마음쓰시었고 어느 한시도 편히 쉬시지 않았으셨다. 조국통일을 위해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시는 주석께서 일하러 가시라든 휴식하러 오시면 하는 청을 드릴 때면 통일이 된 다음에 밀린 잠을 푹 자겠다고 하시며 조국통일평도의 길을 이어가시었다. 때로는 현저지도의 깊은 밤 정적을 깨는 소책자소리를 들으시면서도 통일문제를 놓고 마음쓰시고 때로는 비구름장

을 보시면서도 남녘 동포들생각에 잠 못이 루시던 수령님이시었다. 언제나 어머니수령님의 마음속에 있었고 조국통일이 있었다. 주 체 83(1994)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주석을 만나 뵈은 석상에서 한 해외동포녀류기자는 한때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이라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 용납하겠다는가고 말씀드린적이 있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다. 나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서 지난날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과 과거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나서면 관용으로 대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그에게 가슴후련하게 대답을 주시었다. 어느해 평양에 온 남조선의 문인환복사가 조국을 통일하자면 민족이 단결해야 하겠는대 자본가들은 어떻게 하려는가고 의문이 실린 말씀을 올렸을 때에도 그이께서는 민족적량심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 복무하라는 민족자본가는 다 포섭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지난날 잘못된 길을 걷은 사람이 해도 잘못을 뉘우치고 통일에국의 길에 나선다면 과거를 백지화하고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수령님이시었다.

통일을 위해 불같이 사신 수령님이시었고 생애의 마지막 새벽에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에 불멸의 철폐비를 남기시었다. 그이께서 장군님과 전화로 나누

신 마지막대화도 북남관계와 관련한 말씀이었다. 우리 민족의 고귀한 유산인 어머니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나게 이어오실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었다. 주체85(1996)년 11월 24일, 력사의 땅 관문점을 찾으신 장군님께서 통일철폐비를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수령님의 불멸의 통일령도업적을 가슴뜨겁게 추억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수령님의 철폐비앞에 이렇게 서서 생각하는것이 많다고, 항일혁명투쟁시기를 내놓으면 수령님의 한생이었다고 할수 있다고, 수령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력사적인 철폐비는 수령님의 강인한 통일외지와 신념이 함축되어있고 조국통일에 대한 수령님의 확신이 담겨져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 수령님

의 뜻대로 분렬의 상징인 관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어놓으실 공은 의지를 천명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관문점시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일찌기 민족수난의 시기에 보친보의 밤하늘에 민족제왕의 해불을 지퍼주시것과 같은 사변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쾌거였다.

당시 통일의 원수들은 당장 발밑에서 북조선의 원자란이 러지는것 같은 충격, 심장에 칼을 박아듯 한 느낌을 받았다고 비명을 질렀고 남조선의 주요신문들은 「우리 민족에게 통일선물을 안겨주시려는 민족적거사」, 「조국통일의 봉화를 지켜올리신 민족의 일대 장거」, 「분렬의 상징인 관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전환시키신 력사적쾌거」라고 널리 보도하였다.

장군님께 있어서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져서는 살수 없는 유기체였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언제나 가슴속에서 북과 남의 온 겨레를 안고사시었다.

어머니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이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간직하고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헌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민족모두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여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이 통일운동의 변함없는 지침으로 되게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대용단에 의해 두차례의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

이어나고있다. 어머니수령님 탄생 100돐,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맞이하는 첫해 3월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 관문점을 시찰하신것은 조국통일운동사에 특기할 력사적인 사변이었다.

관문점을 찾으신 그날 최고령도자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체취와 심장의 박동이 그대로 어려오는 철폐비의 굴뚝을 한글자, 한글자 주의깊게 바라보시면서 나라의 통일을 위해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신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었다. 위대한 상이 통일운동의 변함없는 지침으로 되게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대용단에 의해 두차례의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

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 관문점에 철폐비를 모시도록 하시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을 기어이 실현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줄 철석의 의지를 다지시며 동행한 일군들과 함께 수령님의 철폐비앞에서 사진을 찍으시었다. 그날 적들과의 첨예한 대결로 흐르는 풍기마저 맹맹한 최전방의 관문각로데에 오르시여 불과 수십m앞의 남녘 땅을 쌍안경으로 바라보시며 적정을 료해하시는 그이의 안광에는 내외반통일세력에 대한 서리발치는 분노가 비발치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전투군무를 마친 전초병들을 만나시여 모두가 끝말하라고, 보고싶었다고, 이렇게 만나니 반갑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사령의 환眸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었고 관문점을 지켜신 전초병들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며 육친의 정으로 따듯이 돌보아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관문점시찰은 외세와 남조선적계당의 무분별한 반평화, 반통일책동에 기어이 종지부를 찍고 어머니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유훈대로 조국강토에 평화와 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려는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천출명장의 신념과 의지를 보여준 력사적인 장거였다.

적야간의 총부리카 함시적으로 서로 마주하고있는 최대의 열점지대, 외세와 남조선군부호전쟁들의 불장난소동으로 어느 시각에 불과 불이 오가는 전장으로 화할지 모를 위험천만한 최전연을 찾으신 그이의 거룩한 모습에서 온 겨레는 선군정당의 불멸의 통일외지, 담력과 배짱을 보았고 조국통일의 그날을 굳게 확신했다. 오늘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으로 의연히 난관이 조성되고있지만 절세위인의 신념과 의지로 흐르는 이 땅의 통일대하는 그 어떤 힘으로도 가로막을수 없다.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 담력과 배짱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시여 겨레의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실현되게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심영철

통일조국의 앞날을 그리시며

사라진 고민거리 인민을 위한 선물

주체 78(1989)년 3월말 어느날이었다. 그날 어머니수령님께서 평양을 방문한 남조선의 문인환복사를 만나시었다. 수령님을 뵈움에 된 문목사의 감동은 참으로 컸다. 80고령을 내다보는 그이 이시었지만 환하신 모습과 활달하신 걸음걸이, 우아하고 긴장한 품채와 우렁우렁한 음성은 그의 온넋을 사로잡았던것이다. 수령님께서 문목사에게 조국통일은 어디까지나 민족자제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위업을 실현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석님은 조국통일의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시는 민족의 구세주이시라고 거듭 되뇌이 고난 그이께서는 통일하자면

은 민족이 단결하여야 하겠는대 자본가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하였다. 수령님께서 환히 웃으시며 미국사람이나 일본사람 같은 외세를 등에 업고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때 판자본가는 반대하여야 하지만 민족적량심을 가지고 민족을 위하여 복무하려고 하는 민족자본가는 다 포섭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러자 문목사는 사실 자기는 자본가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때문에 주석님을 찾아왔는데 민족자본가들과도 단결할수 있다고 하시니 조국통일은 벌써 이루어진것이나 다름없다고 기뻐없이 소견을 표시했다. 수령님께서 문목사의 얼굴에서 통일을 위해 바치신 그의 고민이 얼마나 깊고 큰 것인가를 헤아리고계시었다.

문제 등에 대해 자세하고도 명백한 대답을 주시었다. 이 어 그들이 인민들에게 주실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무엇인가고 말씀했었을 때 그이께서는 그것은 조국의 통일이라고, 우리 인민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었다.

이다.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우리 인민은 민족분렬로 인한 재난과 불행에서 벗어날수 있으며 온 민족이 다같이 진보와 번영의 길로 나갈수 있다고 하시었다.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고계시는 그이의 애국애족의 통일외지는 그 감복을 금치 못해하였다.

본사기자

조국통일3대헌장은 통일위업실현의 강령적지침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헌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3대헌장은 통일위업수행에서 우리 겨레가 본뜬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북과 남에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래동안 존재하여온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주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헌칙은 북과 남이 7.4공동성명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제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이 강령적지침은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지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위업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융합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명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어있다. 절결한 민족자주정신,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로 일관된 조국통일3대헌장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통일강령이다. 주체사상은 민족의 운명개척과 발

전을 위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이 강령적지침은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지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위업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융합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명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어있다. 절결한 민족자주정신,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로 일관된 조국통일3대헌장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통일강령이다. 주체사상은 민족의 운명개척과 발

전을 위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이 강령적지침은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지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위업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융합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명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어있다. 절결한 민족자주정신,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로 일관된 조국통일3대헌장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통일강령이다. 주체사상은 민족의 운명개척과 발

전을 위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이 강령적지침은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지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위업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융합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명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어있다. 절결한 민족자주정신,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로 일관된 조국통일3대헌장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통일강령이다. 주체사상은 민족의 운명개척과 발

전을 위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이 강령적지침은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지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위업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융합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명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어있다. 절결한 민족자주정신,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로 일관된 조국통일3대헌장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통일강령이다. 주체사상은 민족의 운명개척과 발

전을 위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이 강령적지침은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지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위업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융합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명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어있다. 절결한 민족자주정신,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로 일관된 조국통일3대헌장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통일강령이다. 주체사상은 민족의 운명개척과 발

전을 위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이 강령적지침은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지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위업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융합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명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어있다. 절결한 민족자주정신,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로 일관된 조국통일3대헌장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통일강령이다. 주체사상은 민족의 운명개척과 발

전을 위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이 강령적지침은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지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위업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융합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명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어있다. 절결한 민족자주정신,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로 일관된 조국통일3대헌장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통일강령이다. 주체사상은 민족의 운명개척과 발

전을 위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이 강령적지침은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지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위업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융합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명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어있다. 절결한 민족자주정신,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로 일관된 조국통일3대헌장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통일강령이다. 주체사상은 민족의 운명개척과 발

전을 위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이 강령적지침은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지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위업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융합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명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어있다. 절결한 민족자주정신,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로 일관된 조국통일3대헌장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통일강령이다. 주체사상은 민족의 운명개척과 발

전을 위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이 강령적지침은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지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위업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융합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명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어있다. 절결한 민족자주정신,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로 일관된 조국통일3대헌장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통일강령이다. 주체사상은 민족의 운명개척과 발

리에 맞게 가장 빨리, 가장 공명하게 해결해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이며 그 승리를 담보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는것이다. 조국통일3대헌장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민족주체의 힘,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 나갈수 있게 되었다. 조국통일3대헌장이야말로 조국통일의 기치이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투쟁강령이다. 어머니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이 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통일외지를 철저히 관철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김유정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통일념원이 어려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통일 위업의 관문점

사무치게 그리고그리는
간절한 마음에 받들려
100번째로 찾아온 4월의 봄명절
하늘가득 눈부신 태양의 빛발은
못 잊을 수령님의 미소인가

||장시||

영원한 태양의 미소

—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

김태룡

만경대고향집앞에 서도
만수대언덕에 올라도

100년 세월
받들며 따르며 모셔온 아버지
한평생 배푸신 사랑이
뜨겁게 안겨오는 수령님 미소여

생각도 깊어라
애오라지 민족을 위해
오직 하나 통일을 위해
기술인 심혈과 로고
한생의 기쁨보다 더 많았으면만
언제나 환히 웃으시던 수령님

그 인자하신 미소로
겨레에게 열과 정을 주시고
통일의 진로 밝히시고
그 미소로 분별의 어둠 불살라
오신
수령님 한생은 미소의 한생

세월은 흘러서도
오늘도 피어 이 마음 적시여라
분계연선의 한 농가를 찾으시여
멀지 않아 혈육을 만나게
된다
통일의 날 그려주시던 그 미소가

이렇게 만나니 반갑다시며
해의동포들의 손 정답게 잡아
주시고
떠나갈 땐 조국에 자주 오라고
거듭거듭 이르시던 그 음성
어제런듯 우렁우렁하게 울리여
와라

한평생의 어느 갈피에 새겨있
느냐
남녘에서 찾아오는 로목사
그립던 지기를 만나게 되시는듯
기쁨을 금치 못해하신 수령님
기다려 이윽도록 서계시던
그날은

지체되어 조금 늦게 도착한다고
몇번이고 아뢰어드리는데
남녘동포를 만날수만 있다면
온종일이라도 서서 기다리겠다고
흔연하게 웃으시던 수령님

끝내 기다림의 문을 여시고
뜨겁게 품에 안은 것처럼
눈비까지 어깨우에 맞으시며
평생을 두고 품어주신
통일인사들과 정객들
해외의 동포들은 그 열마였으랴

기다림이란 속이 타
지칠 때도 힘겨울 때도 있거늘
하나 겨레를 기다려 만나는
그런 때가
어찌보면 우리 수령님에겐
제일 즐겁고 행복한 때가 아니
었던지

깊은 밤에도 이른 아침에도
기다림으로 한껏 쌓아온 정
그들의 가슴마다
만면의 미소로 부여주실 때
달라차 말할수 있었으랴
그 사랑은 육친의 사랑

하기에 동포들은 말하지 않았
던가
그 미소 한번 가슴에 닿으면
분별의 상처 가시여지고
이역살이 설움도 다 녹아내린
다고
그래서 온 민족이
그이께 운명을 맡기고 따른다고

외세가 활개치는 남녘을 떠나
정처없이 방황하던 인생도
그이품에 안겨 민족의 넋 새기고
생을 다하는 순간엔
그 미소가 준 웃음을 짓고
간다

심장을 불태우는 애국이
한생을 불태우는 애국이
가득차 넘치던 수령님의 미소여
그 미소가 삼천리에 빛나
분별의 세월은 길고 모질어도
우리 민족의 가슴엔
해빛이 가시던 날 없었나니

겨레여 우리 생각해보자
그이시라고 어이
한생의 해와 달들에
힘에 부친 날이 없었으랴
어찌 잠인들 그립지 않고
휴식인들 하고싶지 않았으랴

북녘의 인민만을 위해서였다면
걸으신 그 길에도
깊으신 심려에도 한계가 있었으리
잘피어가는 나라일에
걱정과 근심 놓으실 때도 있었
으리

눈에 삼삼해라

번듯하게 일떠선 새 거리
준공예 프를 끊으시던 경사의
그날
남녘의 동포들도 이런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절절히 보이시던 수령님모습

굽이쳐 흐르는 관개용수
그 물을 두손에 떠드시고
남녘농민들에게도 줄수 있다면
정말 기쁘겠다고 하시던 말씀
세월이 가도 잊을수 없어

언제 한번 때놓으신적 없으랴
자신의 삶과 운명에서
겨레를 통일을
그래서 가셔야 할 길은 끊였었고
결상인 심혈과 로고
순순간도 떨지 못하신 수령님

밤은 밤대로
불을 들고 지새우시였으랴
조국통일3대원칙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

이 나라를 살리는
이 민족을 구원하는 통일대강들
그 하나하나의 명저를 집필하
시여
겨레에게 안겨주시고
몸소 진두에서 꽃피기신 수령님

지금도 눈시울젖게 어려와라
첫새벽부터 저녁늦게까지
지평이를 짊으며 돌아보신
농장별
힘겨우신 길 걸으시느라
피로가 짊었던 수령님 그 안색이

그러시고도 그러시고도
잠시 로독을 푸실새 없이
어서 가자고
조국에 온 동포들이 나를 기다
린다고
평양길을 다그쳐 재촉하신
수령님

— 아무래도 이 밤을 그냥
넘기면
그들이 몹시 서운해할거요
잠자리에 누워도

편히 잠들것 같지 못하구만
불편하신 몸 그대로
어둠 깔린 수백리밭길을 달리
시던
그날의 수령님모습
아, 조국의 천만자식을 둔
아버지는

한몸 돌보시면 안되던 말인가
줄곧 이런 밭길 걸으셔야 했던가
한몸의 로고는 깊숙이 감추시고
허물없이 마주앉으신 수령님
통일은 민족대단결에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실 때
격정의 눈물 머금던 동포들이여

그날 그대들은 알기나 했던가
수령님 지으신 환한 미소속에
통일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지평이를 짊고 걸으시던
그 한몸의 파로가 실려있는줄

그런 밤 그런 날들이 모여
겨레를 위하시는
수령님 한생의 세월을 이루었고
그 걸음걸음이 모여
통일을 위해 걸으신
수령님 한생의 천만리 이루어졌거니

누가 그렇게 웃으실수 있으랴
통일을 자신의 위업으로 안으시고
통일에 자신을 다 바치시는
민족의 아버지 절세의 애국자
우리 수령님이 아니시고서야

생각할수록 그려볼수록
뜨겁게 안겨오는 수령님모습
말해보자 겨레여
기쁨이라면 그 기쁨은
겨레의 운명에 있었고
아름이라면 그 아름다
겨레의 운명에 있지 않았던가

수재를 당한 남녘의 불행한 소식
한지에 나앉은 동포들의 그
모습이
자꾸만 자꾸만 어리여와
들었던 수저를 놓으시던 그날
어이 력사의 갈피에만 새겨져
있으랴

살벌한 파효의 광풍에

통일인사들이 탄압을 당할 때면
가슴 쓰리시여
찬바람 부는 정원길을 걷고
걸으신
그날은 오늘도 생생히 어려
오거니

통일을 위한 길은
시련도 많고 아픔도 많은 길이
여서
어느 하루 어느 한시도
마음 편한 날 없었던만
언제나 겨레를 안아 지으시던
아버이수령님의 미소여

그 정깊은 미소로
헤어져 살아도 겨레의 가슴에
혈육의 정 흐르게 하시었고
갈라진 강도에도
뜨거운 피가 굵이치게 하신분

그 열화같은 미소로
분열주의자들의 무모한 광란
전쟁의 먹구름 태워버리시며
겨레를 지키고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해주신분

민족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분별의 장벽을 불태워 타오른
오, 해빛같은 그 미소는
애국애족의 불같은 마음
통일을 위한 헌신의 불꽃!

가장 열렬한 사랑이 있고
가장 강한 힘이 있고
가장 무서운 중추가 있는
그 미소는 민족의 태양
수령님만이 지으실수 있는
미소!

— 조국통일문제때문에 나는 늙스
통일만 되면 나는
10년은 더 젊어질것 같소

아, 백발은 세월이 없어준다
우리 수령님의 머리는
통일, 통일때문에 희어진것이
거니

그 흰서리 한오리도
7천만은 가져드리지 못했구나
그 10년을 끝끝내 드리지 못했
구나

통일을 위한 길이라면
겨레를 위한 일이라면
그 길이 멀고 험난한 길이어도
그 중하 기꺼이 떠메시고
웃으며 헤쳐가신 수령님

정녕 통일은 무엇이기에
우리 수령님 속도 많이 쓰시고
많은 애를 태우셔야 했던가
한생을 바치시고도
심장의 마지막박동마저 바치셔야
했던가

생애의 마지막 그날에도
조국통일문건우에
태양의 존함 뜻깊게 친필하시고
그리고 기쁨이 크시여
민면에 밝은 미소 지으신 수령님

— 우리 겨레가 것처럼 고대하던
조국통일은 눈앞에 다가
왔소!

크나큰 걱정과 흥분을 안고
통일된 조국땅을 밟으시는듯
집무실을 건너시던 수령님
그이 활짝 열으시던 창문너머로
밝아오던 새날의 려명여
삼천리에 타오르던 통일의 희망
이여

80여성상 겨레를 위해
너무도 많은 고초를 겪으셨기에
그날의 미소 그토록 환한것이였
어라
통일을 위해 생애의 모든것
자신의 심장마저 불태우셨기에
그이의 미소 그처럼 밝을수
있었기여라

가도가 갈라진 그 첫날부터
겨레를 품어준 은애였고
이 땅에 통일이 오는 길을
환히 비쳐준 등대였던
민족의 은인 수령님의 미소여

가슴마다 소중히 품고산
하나된 조선
통일된 내 조국의 밝은 세상이
였나니

100년세월이 흘러
흘러온 100년세월속에 피어있는
태양의 미소
영원한 통일아버이의 그 미소는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앞길에
찬란하여라 눈부시여라

수령님의 유훈 장군님의 유훈
조국통일
그 성스런 사명을 가슴에 지니
신분
우러러 보라
우리의 최고령도자 김정은장군!

조국통일3대원장
우리 장군끼리의 리념
그것은 그이 추켜드신 통일의
기치
민족을 위한 사랑도 뜻도 의지도
그이는 수령님과 장군님 그대로

위협천만환 최전방
판문점로대에 오르시여
승리자의 미소 지으신
김정은장군
그 미소에서 겨레는
수령님의 영원한 미소를 보았거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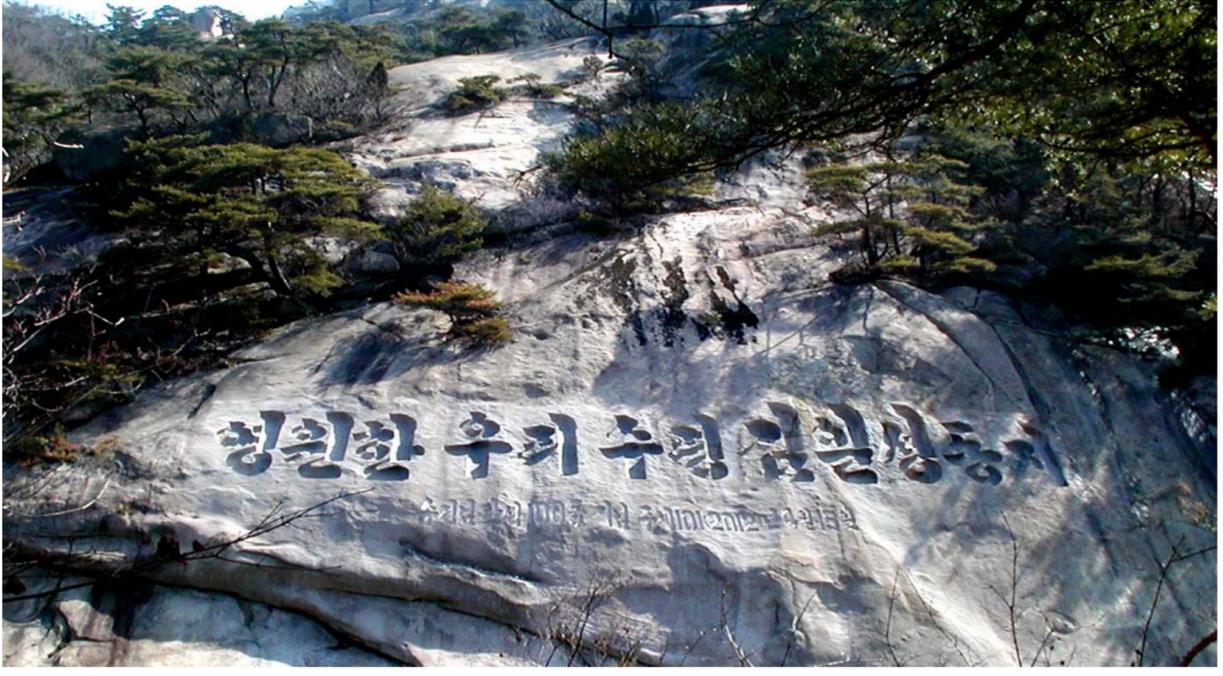
피눈물이 흐르던 12월의 그
날
남녘겨레의 손 굳게 잡아주신분
해외의 동포들을 품에 안아
주신분
그 손길 그 품은 그대로
수령님의 품 장군님의 손길

그이께서 오직 그이께서만이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의 필생의 뜻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기어이 이 땅에 안아오시려나

그이의 힘찬 발걸음 따라
7천만 온 겨레는
반통일의 광풍 맞받아 뚫고가리
그이의 미소 그처럼 밝을수
있었기여라

무궁한 그 앞날 축복하시는가
4월의 이 봄날 수령님은 웃으
신다
통일강성대국어로
온 민족을 이끌어주신다
오, 새로운 100년 또 100년을
이여

태양의 미소는 영원히 빛나리라



비밀한 사상리
론적이지와 탁월
한 령도력, 고매
한 덕망을 지니
신 나라와 민족,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
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
에 대한 신뢰와 존경의 목소
리는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
다. 그이에 대한 내의반향의
일부를 소개한다.
《내가 왜 김일성장군을 존
경하고 사랑하며 아끼고 따
르는가. 그것은 그분이 백두
산이 낳은 조선의 명장이시
고 일제의 무기를 빼앗아 무
장투쟁을 벌려 조국을 광복한
민족의 영웅이시기때문이다.
오직 김일성장군을 따르는 길
만이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
이고 조국이 나아갈 진로이
다.》(민족운동자 려운형)
《김일성주석님은 조국
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민족의 아버지, 불세출의 위인

위한 투쟁에 한평생을 바
치신 민족의 아버지이다.
아버이수령님을 모시여 우
리 민족은 재생되었으며 우
리 조국은 주체의 강국으로
은 세계에 빛을 뿌릴수 있게
되었다. 시대와 력사, 조국
과 민족앞에 쌓으신 그분의
업적은 참으로 위대하다.》
(재중동포 최청산)
《민족도 강산도 그 민족,
그 강산이도 오늘과 같이 놀
라운 현실을 곡도우에 가꾸
어놓게 된것은 김일성주석님
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그분
은 하늘이 낸분이다.》(재
미동포 김성락)
《아버이주석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계지도우에서 빛
을 잃었던 우리 나라가 오늘

만민이 선망의 눈길로 바라
보는 강유력한 사회주의국가
로 전변되었다. 그분께서는
인민모두의 만복을 위해 나
라의 새벽문도 제일 늦게 여
시고 저녁문도 제일 늦게 닫
으시며 한평생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있는 인민의 자
예로운 아버지이다.》
(재로씨야동포 리동철)
《나는 김일성동지와 같
은 세계적위인을 가장 친근
한 전우로, 형제로 모시고있
는것을 무한한 행복으로 생
각한다.》(전 중화인민공화
국 주석 마오쩌둥)
《김일성동지는 천생애에
걸쳐 모든 대결에서 모두 승
리한 력사에 유일한 승리자
이시었고 영원불멸할 정의

의 확신이었다.》(조선인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중
앙리사회 위원장)
《김일성동지는 참으로 현
명분부이다. 그분께서 많
은 일을 해놓았기때문에 다
음세대들은 할 일이 없을것
이다.》(전 유고슬라비아사
회주의련방공화국 대통령 이
오세프 브로즈 지체)
《김일성주석은 미국의 건
국과 운명을 대표했던 조지
워싱턴과 토마스 제퍼슨, 아
브라함 링컨 3대대통령을 다
합친것보다 더 위대한분이지
시다.》(전 미국대통령 지
미 카터)
《김일성주석은 위대한
국가원수이었다. 그분께서

방문기 영광의 그날을 가슴에 안고

개성시
박연폭포
주변의
전연바위
에 새긴
글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넋원 헌신로 꽃피는
조국땅에 경사스러운 태양절
이 왔다.
태양절을 맞고보니 우리
수령님에 대한 산같은 그리
움을 달랠것 같다. 근 60년
의 세월이 흘렀어도 우리
수령님을 만나뵈우던 감격의
그날을 잊을수 없다.
복구건설이 한창이던
1954년 7월 당시 김책시인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사업하
고있던 나는 김책시를 찾은
신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뵈우
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
었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시
의 복구정형을 알아보시고나
서 전정시기 김책시가 적들의
함포사격으로 많은 피해
를 입은것만큼 복구건설을
다그쳐 하루빨리 인민들을
반토굴에서 나오게 해야 한
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인민들에
게 한시바빠 보다 좋은 생
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 그토
록 마음쓰시는 수령님을 우
러리며 나는 흐르는 눈물을
건질수 없었다. 땅국의 세
는 제2차 세계대
전후부터 오늘까
지 활동한 위인
들중에서 가장
우름가는 위인이시었다. 서
방 7개국수뇌자들가운데 유
일하게 나만이 그분을 만나
본 행운을 가졌다. 나는 이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
각한다.》(전 프랑스대통령 프
랑수아 미테랑)
《김일성주석 각하께서
귀국을 위해 쌓아올리신
업적가운데서 미국사람들이
따라배워야 할것이 많다.
각하께서는 주체사상의 기
치밑에 조선인민의 생활을
잘 돌봐주시고 그들을 나라
의 주인으로 내세워주게신
다. 나는 미국사람들이 조선
에서 많은것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미국중
교지도자 빌리 그라함)
본사기자

월 도란에 빠진 인민을 한몸
에 안아줄 위인을 찾아 고향
경상북도 청도군을 떠나 부
평초처럼 떠다니며 북쪽한글
까지 흘러온 나였다. 깃발한
겨레에게 나라를 찾아주신
절세의 애국자, 언제나 인민
들속에 계시며 인민의 행복
을 위해 헌신하시는 수령님
을 끝없는 격정속에 우러르
며 나는 한생을 수령님을 받
들어 충정을 다해갈 신념의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그후 조국통일을 위한 길
에 나섰다가 늑들에게 체포
되었을 때에도 나는 그 하
나의 신념을 안고 맞서 싸
웠다.
원수들은 수령님만을 믿
고 따르는 나의 신념을 혼
들어보려고 물고문, 전기고
문, 비행기고문, 몽둥이고문
등 갖은 야수적고문을 다
들여먹었다. 나중에는 내가 간
헐한 감옥에 일흔이 넘는 나
의 어머니까지 끌고왔다. 전
향공작에 혈육의 정가지 약
용한것이였다. 24년만에 만
나보는 어머니, 흰서리가 덮
인 늙으신 어머니를 보는 순
간 눈앞이 흐려졌으나 늑들
앞에서 눈물
한방울 보
이지 않았다.
비록 어머니
에게 불효자
식이 될지언
정 조국과 인
민을 저버린
배반자로 살
고싶지는 않
았던것이다.
어머니 역시
그것을 바라
지 않았다.
저들의 비
열한 수법이
통하지 않게
되자 늑들은
더욱 미친듯

이 날뛰었다. 늑들의 고문
으로 나는 정신을 잃고 쓰
러질 때가 많았다. 어떤 때
는 내가 죽음을 알고 영화
실(사체실)에 던져놓은적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죽지 않고 기
적적으로 살아왔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 무서위한
죽음의 지옥에서 살아날수
있게 하였는가.
그것은 우리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였다. 가물
가물 정신이 흐려질 때마다
수령님의 영상이 한줄기의
해빛처럼 비쳐들었다. 막돌
처럼 굴러다니던 나를 한몸
에 안아 공부시켜주고 인민
정권기관 일군으로까지 내
세워주신 수령님. 현직지도
의 바쁘신 속에서도 나의
손을 정답게 잡아주시던
우리 수령님은 내가 불사신
처럼 죽음을 이겨내고 승리
자의 모습으로 어머니조국의
품에 땀땀이 안길수 있게 한
신념의 원천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님께 다진 맹세를 끝
까지 지켜싸운 우리들을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내
세워주시고 영광과 행복의
금방석우에 앉혀주시었다.
절세인물들의 하늘같은 사랑
과 은정을 어떻게 한두마디
의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
는가.
아버이수령님, 위대한
인민을 저버린 영광과 행복의
배반자로 살
고싶지는 않
았던것이다.
어머니 역시
그것을 바라
지 않았다.
저들의 비
열한 수법이
통하지 않게
되자 늑들은
더욱 미친듯



비전향장기수 신 린 수

반만년민족사의 최상최대명절 - 2012년의 태양절

위인송가 높이 부르며 태양절을 빛내이리

제 28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개막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을 경축하여 제28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평양에서 개막되었다.

축전개막식이 세계인민들과 예술인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11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었다.

홍겨운 농악무와 부채춤, 상모춤, 금바라춤 등과 교예종목들, 어린이들의 이채로운 재주는 개막식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개막식에는 최영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김기

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강능수 내각부총리, 축전조직위원회 위원장인 안동춘 문화상, 량만길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들과 여러 나라 대표단들, 주조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대사관성원들,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 경축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온 여러 나라 기자들이 참가하였다.

《만경대의 노래》를 비롯한 노래선물에 맞추어 우리나라와 외국의 예술인들이 위인칭송의 마음을 담은 화려한 춤무대를 펼쳤다.

무대화면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세계 여러 나

라 예술인들의 공연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접견해주시는 영상들을 모신 화폭들이 펼쳐지자 참가자들은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경에는 김정일최고령도자의 영상이 화면에 모서리지 우렁찬 박수소리가 터지면서 또 한번의 천출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정이 장내에 세차게 끓어올랐다.

이어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제28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개막을 축하하여 여러 나라 정부와 관공들은 예술단체들, 명망있는 인사들과 명배우들이 보내여 온 전품, 편지가 낭독되었다.

개막사를 안동춘위원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제28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온 예술인들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번 축전에 여러 나라의 저명한 문화관계인사들, 국제국내 공클수상자들을 비롯한 이름있는 예술인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축전기간 참가자들은 아름다운 노래와 춤으로 공연무대를 장식하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고 문화예술발전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들을 서로 나누게 될 것이다.

평양과 지방의 여러곳에 대한 참관을 통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리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펼쳐나가고있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목격하게 될것이다.

연설자는 이번 축전이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예술인들의 지향과 기대에 맞게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제28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개막을 선언하였다.

《빛나는 조국》 노래선물이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 예술인들이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기발을 계양하였다.

전체 축전참가자들은 회세의 천출위인들께 드리는 태양찬가를 높이 불러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을 인류공동의 대경사로 경축하는데 이바지할 열의에 충만되어 있었다.

개막식에서는 우리 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다. 지금 평양시내 여러 극장에서 제28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본사기자



중국예술단(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가무단)의 합창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재일조선인예술단의 혼성중창 《수령님 노래는 영원합니다》



몽골전군협주단의 여성독창 조선노래 불후의 고적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4월의 봄명절을 맞으며 평양에서 제14차 김일성화축전이 성대히 개막되었다.

축전장인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는 《제14차 김일성화축전》, 《태양절경축》이라는 글발과 축전마크가 나붙어있고 공화국기와 축전기발들이 게양되어 있다.

3만여상의 태양의 꽃들로 황홀경을 이룬 축전장에는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과 김정일장군님의 영상이 모셔져 있다. 축전장에 무력, 정권기관, 내각, 성, 중앙기관, 과학, 교육, 보건, 출판보도기관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과 인민군대인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피운 김일성화들이 전시되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와 해외동포들 그리고 주조외교대표부들과 국제기구대표부들, 여러 나라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 개별적인

사들, 불멸의 꽃보급후원회 회원들의 지성이 어린 꽃들도 축전장에 활짝 피어났다.

축전개막식이 13일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관앞에서 진행되었다.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무력, 정권기관, 성, 중앙기관 일군들, 인민군대인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경축

제14차 김일성화 축전 개막

김일성화 만발하는 태양절은 인류의 대경사

제 14차 김일성화 축전 개막



인도네시아정부 문화대표단과 아호메드 띠자니 씨네 공화국 문화, 유산상일행, 김일성화 김정일화보급후

원회 명예회장인 데이 수카르노 국제김일성상사회 성원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개막식에 초대되었다.

개막식은 《김일성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김창도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 위원회 위원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되는 이번 축전은 심오한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뜨거운 지성이 꽃바다로 펼쳐지는 위인칭송의 꽃축전이라고 강조하였다.

절세위인들을 흠모하여 태양의 꽃들을 활짝 피우는것은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념원이라고 그는 말

하였다. 그는 축전을 통하여 불멸의 꽃재배와 보급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서로 나누고 교류와 협력의 뉴대를 두터이함으로써 위인칭송의 꽃들이 온 세상에 만발하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도네시아정부문화대표단 단장인 판광 및 지적경제성 총감독이구스미 부부 락사구나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께 수카르노대통령이 새로 육종된 꽃을 선물로 드린 때로부터 김일성화는 인도네시아와 조선사이의 영리한 친선관계의 상징으로 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개막식은 《불멸의 꽃 축전가》 주악으로 끝났다. 참가자들은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호모의 마음에 떠받들려 경축의 꽃바다를 이룬 축전장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